

## ‘대순’의 용어적 개념과 연구 경향\*

최치봉\*\*

### ■ 국문요약

대순진리회라는 명칭에서 이 ‘대순’이라는 용어는 대순진리회의 근간이자 종단을 대표하는 개념으로, 교리를 이해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종단의 경전이 번역되어 해외로 소개되면서 관련된 학술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대순진리회’, ‘대순사상’이라는 용어는 점차 국내외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순이 종단의 정체성을 대변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용어 자체에 세밀한 분석과 이에 따른 의미나 개념의 분석은 더 활발하게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대순은 크게 “구천상제의 삼계대순에 대한 신앙적 의미”, “삼계대순, 개벽공사의 진리적 의미”, “천지공사의 내용을 순회·연포함의 수행적 의미”, “형이상인 무극, 태극의 본체적 의미”로 정리해볼 수 있다. 대순사상은 대순의 의미를 드러내는 ‘개념의 틀’로, 대순의 개념을 바탕으로 논리적 정합성을 가진 통일된 체계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대순의 의미에서 확장될 수 있는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사고 내용을 확대 재생산할 수 있어 한다.

하지만 이러한 초창기에 종지, 신조, 목적을 중심으로 한 대순사상에 대한 체계화·개념화에서는 대순의 “형이상인 무극, 태극의 본체적 의미”는 온전히 드러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기존에 종지,

\* 본 논문은 최치봉, 「‘대순’에 대한 체용론적 연구: 주자 체용론과의 비교를 중심으로」(대진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20)의 I 장을 주제에 부합하게 수정·보완하고 재구성하여 서술하였음을 밝힌다.

\*\* 아시아종교연구원 연구원, E-mail: awsd42@naver.com

신조, 목적을 중심으로 한 체계화는 종교적·신앙적 경향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전반적인 대순사상의 논의가 학술적 범주인 본체론, 인성론, 수양론 등에서 대순의 의미 접근을 난해하게 만든 경향이 있다.

대순의 개념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을 개괄해보면, 연구의 시작은 대순의 신앙적 측면에서 인격적 상제의 초월성과 주재성을 강조하는 논문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후 대순사상의 연구가 본격화됨에 따라 인격적 상제와 이법성에 대한 종교학적 논의가 이어졌다. 그 뒤 대순에 대한 무극·태극의 본체적 함의가 논의되면서 대순사상은 학술적으로 더욱 정교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주제어:** 대순, 대순사상, 본체, 인격성, 이법성, 무극, 태극

- I. 들어가는 말
- II. ‘대순’의 용어적 의미와 개념
- III. ‘대순사상’의 용어 형성과 그 개념
- IV. ‘대순’의 본체적 의미에 관한 연구 경향
- V. 나가는 말

## I. 들어가는 말

대순진리회 종단 내부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용어는 수도, 도통, 해원, 상생, 개혁, 상제 등이 있겠지만, 대순진리회의 정체성 대변하여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는 ‘대순’이라 할 수 있다. 대순은 대순진리회의 약칭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대순진리회의 사상 전체를 대변하는 ‘대순사상’이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며, 서기와 단기를 대신하여 연호로 사용하기도 한다.<sup>1)</sup> 또한 『대순지침』, 『대순진리회요람』, 『대순회보』, 『대순사상논총』 등 종단의 공식 간행물이나 학술지의 서명으로 쓰이기도 한다.

대순진리회라는 명칭에서 이 대순이라는 용어는 대순진리회의 근간이자 종단을 대표하는 개념으로, 교리를 이해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종단 내부적으로는 대순이 종단의 대표성을 띠는 용어로 꾸준히 사용되어왔다. 특히 21세기 이후로 종단의 경전이 번역되어 해외로 소개되면서, 관련된 학술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대순진리회’, ‘대순사상’이라는 용어는 점차 국내외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내부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경』 영문판의 용

1) 1871년을 대순 원년으로 하며, 현재 2022년 기준으로는 대순 152년이 된다.

어사전을 제외하면,<sup>2)</sup> 종단 외부적으로는 국내를 비롯한 어떠한 사전류에서도 ‘대순’ 그 자체로의 용어는 정립되지 않을뿐더러, 표제어 자체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학술적 측면에서 모든 논문의 제목으로 ‘대순진리회’와 ‘대순사상’은 언급하고 있지만, 정작 ‘대순’에 관한 개념 연구는 상당히 미미한 실정이다. 이는 물론 대순이라는 용어가 대순진리회나 대순사상으로 용어적 호환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대순’이 종단의 정체성을 대변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용어 자체에 세밀한 분석과 이에 따른 의미나 개념의 분석은 더 활발하게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II·III장에서 대순과 대순사상의 용어적 개념에 대해 언급하고, IV장에서는 대순의 개념 가운데서 본체적 의미에 관한 연구 경향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순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앞으로의 대순사상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대순’의 용어적 의미와 개념

‘대순(大巡)’이라는 용어의 문헌적 기원은 『서경(書經)』의 “다음날 새벽에 왕이 육사(六師, 많은 군사)를 대순하여 군사들에게 분명히 맹

2) Daesoon Institute for Religion and Culture, *The Canonical Scripture* (Yeoju: Daesoon Jinrihoe Press, 2020), p.412, “[Great Itineration (Daesoon 大巡)] -‘Great Itineration’ is a translation of Daesoon and refers to a central concept in the Daesoon Jinrihoe. ‘Dae (大)’ refers to ‘great’ while ‘soon (巡)’ means ‘itineration,’ ‘cycle,’ or ‘circulate.’ Sangje Kang Jeungsan referred to both His itineration throughout the world, before and after His descending, and also His proclamation of Reordering Works as ‘Daesoon.’ ‘Itineration’ refers to Sangje’s procession throughout the Three Realms. This act is similar to a king making a circuit about his kingdom as part of his governing or administering of justice. Sangje’s Great Itineration took Him throughout the Three Realms that make up the entire World in traditional East Asian cosmology.”

세하였다.”이다.<sup>3)</sup> 여기서의 대순은 ‘크게 순행(巡行)한다’는 뜻으로 무왕(武王)이 군사들을 살펴보기 위해 여러 곳으로 돌아다님을 의미한다. 『서경』의 크게 순행한다는 뜻으로 사용되던 대순은 이후 다른 의미로는 언급되지 않다가, 20세기부터 종교적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증산(甌山 姜一淳, 1871~1909)의 언설로 재조명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최초로 문헌으로 확인된 것은 1926년 간행된 『증산천사공사기(甌山天師公事記)』의 “내가 천하를 대순하여 삼계대권으로 천지를 개조하여 선경을 열고 세계창생을 건지려고”<sup>4)</sup>이다. 여기에서 대순은 하늘에 있던 증산이 천지인의 삼계를 순행한 종교적 행위에 대한 개념으로 기술되었다. 저자인 이상호(李祥昊, 1888~1966)는 대순의 주체인 증산을 천사(天師)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후 출간된 『대순전경(大巡典經)』(1929)도 『증산천사공사기』와 같은 맥락에서 대순과 천사의 개념이 사용되었다.

대순의 주체로서 증산은 정산(鼎山 趙哲濟, 1895~1958)에 의해서 가장 높은 위적인 구천상제(九天上帝)로 신앙되기 시작했다.<sup>5)</sup> 그리하여 구천상제가 행한 대순의 의미는 전우주적인 차원의 종교적 행위로 인식되었다. 이는 대순의 개념에 대한 종교적 외연이 넓어짐을 의미한다. 그 뒤 대순이라는 용어는 정산에게 종통을 이어받은 우당(牛堂 朴漢慶, 1917~1996)에 의해 대순진리회라는 종단의 명칭에 사용되었다.

대순진리회에서 대순의 명칭이 포함된 첫 인쇄물은 1969년 발간된 『대순진리회요람』이다. 여기서는 대순을 “삼계대순(三界大巡) 개벽공사(開闢公事)”의 뜻을 담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종단의 명칭에서 대순의 용어는 상제의 말씀에 근거한 것임을 언급하고 있다. 구체적으

3) 『書經』, 「周書」 泰誓 下, “時厥明 王 乃大巡六師 明誓衆士”, 『홍재전서』 권99, 「經史講義」 書經 7, “義浩對 六師者 衆師之通稱 詩文王之什曰 周王于邁 六師及之是也”

4) 『증산천사공사기』, p.73, “나는 西洋大法國天啓塔天下大巡이라 내가三界大權으로 天地를改造하여 仙境을 열고造化政府를 세워 死死滅에濱한世界蒼生을 건지려할새 너의東方에 巡廻하다가 이사에 甞친것은 冥慘禍中에 卹진無名小弱의民族을 문저도와서 萬古에 싸인冤을 글너주라함이라.”

5) 박용철, 「구천응원보성보화천존상제 신격 연구」, 『대순사상논총』 29 (2017), p.77.

로 『대순진리회요람』에서 대순과 관련한 어구가 소개되고 있는데, “원시의 모든 신성·불·보살들이 회집하여 인류와 신명계의 겁액을 구천에 하소연하므로 내가 서양 대법국 천계탑에 내려와 천하를 대순하다가 이 동토에 이르러”<sup>6)</sup>, “나는 서양 대법국 천계탑에 내려와 천하를 대순하다가 삼계대권을 갖고 삼계를 개벽하여 선경을 열고 사멸에 빠진 세계 창생을 건지려고”<sup>7)</sup>, “공우가 삼년 동안 상제를 모시고 천지공사에 여러 번 수종을 들었는데 공사가 끝날 때마다 그는 ‘각처의 종도들에게 순회·연포하라’는 분부를 받고 ‘이 일이 곧 천지의 대순이라’는 말씀을 들었도다.”<sup>8)</sup> 등이다.<sup>9)</sup> 이러한 어구를 요약하자면, 원시의 모든 신성·불·보살들이 구천에 하소연하였다는 ‘대순의 배경’, 삼계를 개벽하여 선경을 열고 사멸에 빠진 세계 창생을 건지려는 ‘대순의 목적’, 그리고 대순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써의 개벽공사와 이 공사를 종도들에게 널리 알리는 ‘천지공사에 대한 수종이나 참여’를 뜻하는 포괄적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외에도 대순의 개념에서 주목할 점은 기존에 구천상제의 대순하신 행적과 천지공사를 의미하던 것에 이어서 본체적 개념이 언급되었다는 점이다. 여주본부도장의 포정문 벽면에는 대순진리회 창설 유래에 대한 글귀가 적혀 있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대순이 무극(無極)과 태극(太極)에 준하는 본체로서의 개념임이 언급된다. 이 글의 전반적인 내용은 1956년 태극도 시절 정산의 명을 받아 우당이 작성한 『태극도통감』의 「취지서」에 근거한다. 포정문의 대순진리회 창설 유래의 글은 『태극도통감』의 「취지서」를 바탕으로 첫 구절에 “대순이 원이며 원이 무극이고 무극이 태극이라.”라는 구절이 추가되어 있다.<sup>10)</sup> 이는

6) 『전경』, 교운 1장 9절.

7) 같은 책, 권지 1장 11절.

8) 같은 책, 교운 1장 64절.

9) 『대순진리회요람』, pp.5-6.

10) 차선근, 「종단 대순진리회의 변천 과정과 무극 태극의 관계」, 『대순회보』 94 (2009), pp.98-100 참조.

대순사상 연구의 측면에 있어서, 기존에 언급되던 대순의 개념에서 무극과 태극에 대한 형이상적 본체에 관한 논의가 함께 다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sup>11)</sup> 그리하여, 대순진리회에서 언급된 ‘대순’의 용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크게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1. 구천상제의 삼계대순에 대한 신앙적 의미
2. 삼계대순, 개벽공사의 진리적 의미
3. 천지공사의 내용을 순회·연포함의 수행적 의미
4. 형이상인 무극, 태극의 본체적 의미

첫 번째 의미의 대순은 『전경』에서 삼계대순,<sup>12)</sup> 천지대순,<sup>13)</sup> 천하대순<sup>14)</sup>으로 언급된다. 삼계·천지·천하 등은 우주 삼라만상에 속한 대상이나 현상의 모든 범위에 관한 대권을 가진 최고신이 순행한다는 것이다. 이는 『서경』에 보이는 ‘크게 순행한다’의 뜻과 가장 유사하다.<sup>15)</sup> 두 번째 의미는 “이 종단의 명칭을 대순진리회라고 한 그 대순의 어귀는… 삼계대순 개벽공사의 뜻을 담고 있는 그 대순을 인용하여 이름한 것이다.”<sup>16)</sup>, “상제께서 천하를 대순하시고 광구천하·광제창생으로 지상선경을 건설하시고자 인세에 강세(降世)하셔서 전무후무한 진리의 도(道)를 선포하셨다.”<sup>17)</sup> 등의 구절에서 보듯이, 상제께서 대순하시고 개벽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세상에 밝히신 진리를 뜻한다.

---

11) 대순을 무극·태극의 범주에서 고찰한 연구는 차선근(2009)의 「종단 대순진리회의 변천 과정과 무극 태극의 관계」로 시작되었고, 그 뒤 『대순사상논총』에서 박재현(2014)의 「대순사상에서의 무극과 태극 그리고 대순의 의미 고찰」과 최치봉(2014)의 「대순사상의 태극에 관한 연구: 주자의 태극과 비교를 중심으로」, 이광주(2016), 「주자학과 대순사상의 수양론 비교 연구」 등이 후속연구로 발표되었다.

12) 『전경』, 교운 2장 6절.

13) 같은 책, 교운 1장 64절.

14) 같은 책, 교운 1장 9절, 권지 1장 11절, 예시 1절.

15) 『전경』 영문판 용어사전에 소개된 ‘Great Itineration’에 대한 설명도 첫 번째 의미가 강조되어 이루어졌다.

16) 『대순진리회요람』, pp.5-6.

17) 『대순지침』, p.17.

또한 종통계승의 시각에서 진리는 종단의 종지인 음양합덕·신인조화·해원상생·도통진경을 중심으로 한 ‘대순진리회의 교리(종교적 원리나 이치)’를 뜻한다. 세 번째 의미는 천지공사에 대한 수종과 이를 타인에게 전달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상제의 천명을 받들고 따르다는 수행의 의미와 이 천명이 전파되고 구현됨을 사람(중도)이 이바지한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네 번째 의미는 형이상의 본체로, 우주가 우주된 우주 본연의 법칙이자 그 신비의 묘함이다. 모든 것의 근원이자 원천으로 우주 삼라만상의 대순의 씨앗에서 나왔으며, 대순으로 꽃 피고, 대순으로 열매 맺을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 II. ‘대순사상’의 용어 형성과 그 개념

사상이라 함은 사전적 의미로 “판단, 추리를 거쳐서 생긴 의식 내용”, “논리적 정합성을 가진 통일된 판단 체계”, “사고 작용의 결과로 얻어진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의식 내용” 등을 뜻한다. 그래서 대순에서 파생된 대순사상은 대순의 개념을 바탕으로 논리적 정합성을 가진 통일된 체계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대순의 의미에서 확장될 수 있는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사고 내용을 확대 재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할 때 대순사상은 대순의 의미를 드러내는 ‘개념의 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대순사상을 실천한다.” 혹은 “대순사상을 밝힌다.”라는 것은 대순이란 개념적 틀로 가치의 기준을 삼거나 삶의 양식을 결정함을 말한다. 신앙적으로 보자면 종교적 교리나 가치를 내면화하여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하는 것이다. 또한, 학문적 범주에 있어서는 대순을 기준으로 한 논리적으로 통일된 사고의 형태를 말하며, 학문적 논의가 되는 우주관·인간관·윤리관 혹은 본체론, 인성론, 수양론 등에서 대순의 개념을 논리적 정합성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논증

함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전적 정의에 비춰 볼 때, 대순사상이라는 용어가 학술적인 측면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형성되고 개념화되어 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69년 대순진리회의 창설에서 종단의 명칭으로 사용된 ‘대순’이라는 용어는 이후로 종단의 대표성을 지니며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종단이 창설되고 대순진리회의 제반 사상에 관한 연구가 태동하였는데, 이는 1974년 전경편찬위원회에 참여한 종단 내외 학자들의 연구모임을 시작으로 한다. 이들에 의해 신앙적 관점에서 대순진리회의 사상의 합리성을 밝히고자 한 저서가 출간되는데, 이것이 1976년 간행된 『증산종교사상』이다.<sup>18)</sup> 이후 1982년 종단의 교무부 산하 직속 기관으로 대순종교문화연구소가 공식 발족하게 되었는데, 당시 제정된 회칙에서 연구의 목적을 “대순진리(증산종교사상)와 기타 종교 일반의 종교성, 그리고 그것들과 관련된 문화를 연구하는 것”<sup>19)</sup>이라 명시하고 있다. 이는 대순진리회의 제반 사상을 신앙(신학)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종교학과 철학을 바탕으로 학문적, 사회문화적 분야에까지 그 저변을 넓히고자 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향에서 대순사상의 명칭이 포함된 첫 학술 저서도 출간하게 되는데, 이것이 ‘대순사상신서-『대순사상의 현대적 이해』’(1983년)이다. 이 논문집에서 장병길은 대순을 우주 삼계의 곳곳을 두루 순회하여 그 세계들의 정황을 살피고 그 정황으로부터 모든 존재를 풀어주는 구원의 뜻을 가진 어휘라고 하였다.<sup>20)</sup> 또한, 이항녕은 대순사상에서 대순이란 순환의 뜻을 담고 있다고 하였고, 우주의 원리는 도수이며 그 도수는 삼계를 순환하는 것으로 신명과 인간도 우주의 도수

18) 『전경』을 중심으로 서술되며, 대순진리회를 중심으로 증산사상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증산사상연구와 구분된다. 여기서 대순은 대순진리의 배경으로서 대순삼십년(大巡三十年)과 증산이 탄강하던 해를 대순기원(大巡紀元)으로 간략히 언급할 뿐 대순의 개념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이지 않고 있다.

19) 대순종교문화연구소 홈페이지, 연구소 소개 참조 (<http://dirc.kr>).

20) 대순종교문화연구소, 『대순사상의 현대적 이해』(서울: 대순진리회, 1983), p.60.

에 따라서 천하를 순환하는데 이 위대한 순환의 원리를 대순사상으로 보았다.<sup>21)</sup> 이는 기존에 증산의 행적에 따른 신앙적 의미를 언급하던 대순의 개념에서 나아가 우주의 원리를 함께 논의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대순종교문화연구소에서는 이후로도 계속하여 대순사상의 학술 저서를 발간했는데, 1987년 『증산종교사상』을 대순사상신서Ⅱ-『대순종교사상』으로 개정하여 발행하였고,<sup>22)</sup> 『대순진리강화 I』(1987), 『대순진리강화Ⅱ』(1989), 『천지공사론』(1989)를 잇달아 발행하였다. 이후 1991년 대진대학교가 개교되고, 그다음 해는 대순사상학술원이 설립되었으며, 1995년 대순종학과<sup>23)</sup>가 개설되어 대순사상에 관한 학술적 연구를 축적하며 지금에 이르고 있다.

특히, 대순사상학술원에서 발간하는 『대순사상논총』은 발간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대순사상의 학술연구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1996년 발간된 『대순사상논총』 창간호를 살펴보면, 당시의 대순사상에 관한 대략의 연구 방향성이 제시됨을 볼 수 있다.

대순사상은 강증산 구천상제로부터 천부의 계시를 받으신 조정산 도주에 의해 확립되었으며 이를 유명으로 종통을 받으신 박한경 도전에게로 이어지는 연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순사상 연구를 위한 방향과 그 활발한 연구작업을 위해 먼저 사상의 근간이 되는 종단설립 당시의 취지를 잘 파악할 필요가 있

21) 같은 책, p.149.

22) 장병길, 『대순종교사상』, (서울: 대순종교문화연구소, 1987), pp.12-24. 여기에서는 기존의 『증산종교사상』에 비하여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의 대순을 언급된다. 저자인 장병길은 대순을 종교 신앙적 표현으로 보았다. '닐리 돌며 살핀다'는 뜻의 대순을 시기적으로 구분하여 세상에 강제하기 앞선 '천하의 대순', 동토에 이르러 금산사에 계신 '30년 대순', 강세한 신미년(1871)년을 대순기원(大巡紀元)으로 여기고 인간의 몸으로 천지공사를 행하신 '인세에서의 대순'으로 보았다.

23) 대순사상은 학문적 측면에서 신학을 기반으로 하며 철학과 종교학의 측면을 포괄하는 넓은 범주의 개념으로 대순종학은 신학으로 정의 내리기엔 그 학문적 범위가 축소되고, 종교학으로 보기엔 그 의미가 멀어진다. 그러므로 대순종학이라고 할 때 종(宗)은 마루, 일의 근원, 근본, 으뜸의 사전적 본의를 살려 '대순하신 진리를 연구하는 으뜸 되는 학문'이라 여길 수 있다.

다. 크게는 종지, 신조, 목적으로 나누어지는 대순사상의 체계를 오늘날의 상황에서 이해해보고 이를 토대로 계속적인 연구를 해 나갈 때 하나의 학문적인 정립이 이루어지리라고 본다.<sup>24)</sup>

여기서는 크게 대순사상의 연구 범주를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고 보인다. 첫째는 대순사상은 종통(宗統)의 측면에 기반하여 전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대순사상이 증산의 유지(遺志)와 증산을 연원으로 하고 있지만, 그 사상을 계승한 정산의 유법(遺法)과 대순진리회를 현창한 우당의 유훈(遺訓)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종교사상을 통칭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대순사상의 체계를 종지(음양합덕, 신인조화, 해원상생, 도통진경), 신조(삼요체, 사강령), 목적(정신개벽, 인간개조, 세계개벽)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인용문에서 보듯이 중단설립에 대한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앞서 정리한 대순의 의미를 이에 반영해 보면, 중단설립에 대한 신앙의 관점에서 “구천상제의 삼계대순에 대한 신앙적 의미”가 포함되며, 종지나 목적을 다룸으로써 “삼계대순, 개벽공사의 진리적 의미”가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신조는 “천지공사의 내용을 순회·연포함의 수행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초창기에 종지, 신조, 목적을 중심으로 한 대순사상에 대한 체계화·개념화에서는 대순의 “형이상인 무극, 태극의 본체적 의미”는 온전히 드러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기존에 종지, 신조, 목적을 중심으로 한 체계화는 종교적·신앙적 경향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전반적인 대순사상의 논의가 학술적 범주인 본체론, 인성론, 수양론 등에서 대순의 의미 접근을 난해하게 만든 경향이 있다. 이는 초창기 『대순사상논총』에서의 대순사상에 대한 범주화가 지금의 학술적 외연을 포괄하지 못함을 뜻한다.

24) 정대진, 「대순사상 연구를 위한 제언」, 『대순사상논총』 1 (1996), p.1

#### IV. ‘대순’의 본체적 의미에 관한 연구 경향

대순에서 본체적 의미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이다. 무극·태극으로 대표되는 동양의 이법(理法)적 개념과 대순의 관계성을 다룬 차선근의 글(2009년)을 시작으로 그 논의가 활발해졌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연구 경향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선 우선 대순의 본체적 의미논쟁에 기반이 되는 초창기 연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순사상의 연구는 초창기부터 신앙의 측면에서 인격적 상제관과 우주법칙이나 도의 원리 등의 이법성 사이의 관계성에 대해 논의됐다. 이러한 논의의 대립점은 우선 상제가 우주의 이법을 창조한다는 유신론적 인격성을 강조할 경우, 개체화된 근원자로서 세상에 만연한 악(惡)의 원인에 대한 논쟁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법성을 강조할 경우 개체의 범위를 초월한 우주의 원리로서 보편성을 가질 수 있지만, 인간의 종교적 체험 속에서의 신앙적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 또한 우주를 총괄하는 가장 높은 위에 계신 천존에 대한 신앙적 권위가 격하될 수 있다. 그리하여 대순사상에서도 인격적 상제와 이법성 사이를 언급함에 있어서 어떠한 측면을 강조하느냐에 따른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표 1〉 대순사상의 신관에서 인격성과 이법성에 관한 초창기 연구

구분	요지	주요 논문	
인격성 > 이법성	신앙적 측면에서 상제의 인격성과 주재성을 강조	장병길	『大巡思想의 現代의 理解』 <sup>25)</sup> 고남식 「선천 천관과 상제의 초월성」 <sup>26)</sup>
인격성 = 이법성	인격적 신과 이법적 원리의 동일성 강조	윤기봉	「신인조화의 종교학적 이해」 <sup>27)</sup>
인격성 ≤ 이법성	인격적 신과 이법적 원리의 동일성 가운데 이법성을 강조	유승중	「종지론과 도의 관계」 <sup>28)</sup>

25) 대순종교문화연구소, 앞의 책, pp.63-64, 구천은 하늘의 가장 높은 곳을 말하는 종교적인 상징으로 구천에 계신 상제는 자연과 우주를 넘어서는 초연(超然)의 주체

궁극적 실재에 대한 인격성과 이법성의 연구는 포정문의 대순진리회 창설 유래에 관한 글귀를 기반으로 하여, 대순의 본체적 개념 논의로 이어지게 된다. 이는 무극과 태극의 이법성과 상제의 인격성의 범주에서 대순의 개념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담론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논의에는 우선 무극과 태극을 동격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에서 시작하여, 대순·무극·태극의 관계에 대한 논의, 나아가 이러한 무극·태극과 상제는 대순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에 대한 논의로 이어진다.

## 1. 대순 = 무극 = 태극

차선근은 “대순이 원이며 원이 무극이고 무극이 태극이라.”를 통해 본체적 개념들의 관계성에 대한 학술적 논의를 전개하였다.<sup>29)</sup> 그는 태극과 무극의 논쟁을 통해 대순사상에 있어 무극에서 태극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극과 태극의 동치를 밝혔다. 이 연구는 대순을 무극·태극과 같은 범주에서 논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이광주는 본체를 언급함에 있어 주자학의 본체는 태극과 리이며 대순사상에서는 인격적인 상제와 이법적인 대순·원·무극·태극을 언

자(主體者)로 보았다. 이러한 상제는 초연의 원리법칙을 세워서 그 법칙에 따라 만물을 조화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26) 고남식, 「선천 천관과 상제의 초월성」, 『대순사상논총』 8 (1999), p.249, 우주차원의 도의 원리를 신도로 보고 이러한 신도를 상제가 주재한다고 보아 인격천으로서 상제의 초월성을 강조하였다.

27) 윤기봉, 「신인조화의 종교학적 이해」, 『대순사상논총』 3 (1997), pp.310-314, 종교학에서 언급되는 궁극적 실재(窮極的 實在)에 대한 개념을 대순사상에 접목하였다. 또한, 궁극적 실재가 인격적 속성과 비인격적인 속성을 동시에 가짐을 언급하였고, 궁극적 실재인 상제를 우주 법칙의 화현(化現)으로 이해하여 이 양자의 모순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28) 유승중, 「종지론과 도의 관계」, 『대순사상논총』 6 (1998), p.502, 종교적 교리의 보편성 담보를 언급하며 대순진리의 궁극적 실재는 도(道)라고 보았는데, 난법과 대비되는 진법을 쫓는 것이 인간의 당위이며, 진법은 곧 상제와 일치한다고 보아 대순진리회의 도는 천신신앙과 천도신앙이 조화를 이룬 것이라 언급하고 있다.

29) 차선근, 「중단 대순진리회의 변천 과정과 무극 태극의 관계」, pp.98-100.

급하였다.<sup>30)</sup> 이법천과 인격천이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함에 의의를 지니지만 대순의 개념을 이법천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의성은 궁극적 실재를 신도(神道)로 규정하고 상제·신명의 인격성, 도·대순·무극·태극의 이법성, 천·지·인의 삼계의 자연성, 질료적 지기(至氣) 등의 다양성이 신도에서 조화되어 나타난다고 보았다.<sup>31)</sup> 이러한 관점은 체용에 있어 체용일원(體用一源), 체용불이(體用不二)의 관점에서 궁극적 실재인 신도와 세상 만물의 일체성을 강조한 것이다.

## 2. 대순 = 무극 + 태극

박재현은 태극을 세상에 내재하는 원리로 무극을 세상에 초월하는 것으로 상보적인 관계로 보았고, 이에 상제관에서 초월성을 무극으로 내재성을 태극으로 여겨, 대순이라는 순환성을 통해 무극과 태극의 동치성을 연결한 것으로 보았다.<sup>32)</sup>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태극과 무극을 동치가 아닌 생성론적 관점에서 이분화한 것이다. 주자의 무극은 이 우주의 본체가 형체가 없음을 드러내고자 동원된 개념으로, 태극의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인 것이다. 또한, 태극은 그 자체로 세상에 내재하는 원리와 세상을 초월하는 원리를 모두 가지고 있으므로, 그의 논지는 앞서 차선근이 논의한 ‘무극=태극’이라는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sup>33)</sup>

30) 이광주, 「주자학과 대순사상의 수양론 비교 연구」, 『대순사상논총』 24-2 (2015), p.236.  
31) 김의성, 「대순사상의 철학적 탐구: 해원상생의 이념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6), pp.21-39.

32) 박재현, 「대순사상에서의 무극과 태극 그리고 대순의 의미 고찰」, 『대순사상논총』 22 (2014), pp.449-466.

33) 박재현의 논문에서의 “태극을 세상에 내재하는 원리로 무극을 세상에 초월하는 것으로 규정” 함은 주광호의 논문인 “『周敦頤『太極圖說』의 존재론적 가치론적 함의」 『한국철학논집』 20 (2007)의 논지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주광호는 “주돈이가 『태극도설』에서 무극은 시공간 초월적 존재임에 반해, 태극은 시공간 내적 존재”고 보았다. 하지만 이는 주돈이의 생성론적 구조에서의 의미이며, 주자는 이러한 생성론적 구조의 모순을 인식하여 무극과 태극을 동일시 한 후 형이상의 영역인 리로 독해하여 『태

### 3. 대순 = 무극 · 태극 + 상제

최치봉은 형이상학의 본체로서 무극과 태극을 같은 개념으로 보았다. 대순은 이법적 본체 개념의 함의와 더불어 인격적 상제의 작용함이 포함된 개념이라고 규정하고, 존재와 관련된 본체는 태극이지만 우주의 기능과 작용의 원인에 관련된 본체는 상제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대순이라는 개념에 인격성과 이법성이 포함됨을 철학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이법성과 인격성으로 인한 각각의 본체적 개념을 언급함에 의의를 지닌다.<sup>34)</sup>

김대현은 헤겔철학에 근거하여 대순사상에서 궁극적 실재의 종교적 인격성과 철학적 이법성을 변증법적 지양을 통해 종합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인격성과 이법성의 모순에도 불구하고 이 양자를 대순이라는 더 높은 경지에서 수용하고자 하였다.<sup>35)</sup>

앞서 대순사상의 개념에서 대순은 신앙적 측면에서 인격적 상제의 종교적 행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공사의 함의와 철학적 이법성까지 담지한 광의적 의미임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대순사상의 기존의 연구들을 개괄해보면, 연구의 시작은 대순의 신앙적 측면에서 인격적 상제의 초월성과 주재성을 강조하는 논문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후 대순사상의 연구가 본격화됨에 따라 궁극적 실재에서 기존의 인격적 상제와 이법성에 대한 비교종교학적 또는 종교철학적 논의가 이어졌다. 그 뒤 대순에 대한 무극 · 태극의 본체적 함의가 논의되면서 대순사상은 철학적으로 더욱 정교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극도설』을 본체론적 도식으로 이해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리하여 주희는 주돈이의 무극-태극 개념이 갖는 초월-내재적 구도를 버리고, 『태극도설』이 보여주는 우주 질서와 개인질서 사이에 존재하는 생생이라는 구조와 내용에 있어 통일성과 연속성을 계승한 것이라 주장하였다. 즉, 박재현의 논문에서 무극과 태극의 개념 정립은 주자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으며 또한, 무극과 태극을 이분화한 것은 ‘무극=태극’이라는 대순사상의 원의와도 어긋난다.

34) 최치봉, 「대순사상의 태극에 관한 연구」, 『대순사상논총』 23 (2014), p.402, p.418.

35) 김대현, 「대순사상의 궁극적 실재론 연구」, 『대순사상논총』 24-2 (2015), p.224.

## V. 나가는 말

『서경』에서 ‘크게 순행한다’는 의미와 이상호의 『대순전경』에서 ‘천사의 대순’, 그리고 『대순진리회요람』에서 ‘전 우주적 차원의 종교적 행위’는 모두 대순이라는 용어로 사용되지만, 서로 다른 의미 범주와 개념을 지닌다. 용어란 어느 분야에서 일정한 개념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말이기 때문에, 시대와 상황에 따라 대순의 용어적 개념이 가변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순진리회 내부에서도 대순과 그로 파생되는 대순사상을 어떠한 초점에 맞추느냐에 따라 그 개념이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대순사상은 학술적 영역에 있어, 초창기에는 종단의 종지·신조·목적 등을 중심으로 그 용어의 규범화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경향은 『대순사상논총』<sup>36)</sup> 2~15집을 비롯하여, 『대순진리학술논총』 2~14집<sup>37)</sup>과 『대순사상의 이해』<sup>38)</sup> 등에서 두드러진다. 이는 전반적인 방향성에 있어 대순의 개념을 신앙적으로 범주화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비교적 최근에 이르러서야 이러한 대순에 개념에 대한 재고찰이 논의되고 있다.<sup>39)</sup>

대순사상이 대순의 의미를 드러내는 ‘개념의 틀’이라고 상정할 때, 대순에 대한 의미 분석이나 개념 정립은 상당히 중요한 학술적 작업이 된다. 그러므로 대순사상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의식 내용으로 확대 재생산하고, 학술적인 외연을 넓히기 위해서는 대순에 대한 다각도의 의미 고찰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 있어 최근에

36) 대순사상학술원에서 1996년부터 발행하고 있는 논문집. 특집호로 구성되어 주제별로 발간. 2~6집 종지, 7~12집 신조, 12~15집 목적으로 구성.

37) 대순사상학술원에서 2007~2014년간 발행한 논문집. 특집호로 구성되어 주제별로 발간. 2~5집 종지, 6~11집 신조, 12~14집 목적으로 구성.

38) 대순종학 교재연구회 편집하고 대진대학교 출판부에서 1998년 간행된 책. 대진대학교 교양과목인 ‘대순사상의 이해’의 수업자료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목차 제5편 대순사상의 근본이념을 종지, 신조, 목적으로 구분하고 있다.

39) 윤용복, 「대순사상 연구의 경향과 과제」, 『대순종학』 1 (2021), pp.10-14; 고병철, 「종교철학 분야와 대순진리회의 연구 주제들」, 『대순종학』 1 (2021), p.59.

10여 년간 진행된 대순에 관한 형이상의 본체적 의미논쟁은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에서 평가될 수 있다.

태극은 형이상으로 우주의 근원이 되는 본체이면서도, 각각의 사물에 내재되어 있는 원리이자, 사람의 내면에 있어서도 중요한 도덕적, 윤리적 기준으로 작용한다. 대순이 태극·무극과 동치를 이룬다고 할 때, 대순 역시 본체적 의미를 포괄한 여러 학술적 의미로 개념화될 수 있는 것이다. 동양철학에서 천도론, 리기론, 도체론, 본체론, 인성론, 수양론 등의 학문 분야는 본체와 작용이라는 거대 담론에서 하나의 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본체와 작용[體用]이라는 전체적 틀을 형성하지 않고서는 나머지의 학문 분야에서 그 사상적 통일성을 담보할 수가 없다. 그리하여 학술적 영역을 포괄하는 대순사상의 다양한 논의를 위해서는, 대순이라는 개념의 본체적 의미가 결코 경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전경』,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0.
- 『대순지침』,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2.
- 『대순진리회요람』,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0.
- 『서경』
- 『증산천사공사기』
- 『홍재전서』
- 고남식, 「선천 천관과 상제의 초월성」, 『대순사상논총』 8, 1999.
- 고병철, 「종교철학 분야와 대순진리회의 연구 주제들」, 『대순종학』 1, 2021.
- 김대현, 「대순사상의 궁극적 실재론 연구」, 『대순사상논총』 24-2, 2015.
- 김의성, 「대순사상의 철학적 탐구: 해원상생의 이념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6.
- 대순종교문화연구소, 『대순사상의 현대적 이해』, 서울: 대순진리회, 1983.
- 박용철,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상제 신격 연구」, 『대순사상논총』 29, 2017.
- 박재현, 「대순사상에서의 무극과 태극 그리고 대순의 의미 고찰」, 『대순사상논총』 22, 2014.
- 유승중, 「종지론과 도의 관계」, 『대순사상논총』 6, 1998.
- 윤기봉, 「신인조화의 종교학적 이해」, 『대순사상논총』 3, 1997.
- 윤용복, 「대순사상 연구의 경향과 과제」, 『대순종학』 1, 2021.
- 이광주, 「주자학과 대순사상의 수양론 비교 연구」, 『대순사상논총』 24-2, 2015.
- 장병길, 『대순종교사상』, 서울: 대순종교문화연구소, 1987.
- 정대진, 「대순사상 연구를 위한 제언」, 『대순사상논총』 1, 1996.
- 차선근, 「종단 대순진리회의 변천 과정과 무극 태극의 관계」, 『대순회보』 94, 2009.
- 최치봉, 「대순사상의 태극에 관한 연구」, 『대순사상논총』 23, 2014.
- Daesoon Institute for Religion and Culture, *The Canonical Scripture*, Yeosu: Daesoon Jinrihoe Press, 2020.

■ Abstract

## The Terminological Concept of Daesoon and Its Research Trend

**Choi Chi-bong**

Researcher, The Asian Institute for Religions

The term, 'Daesoon' in Daesoon Jinrihoe is the foundation of the order and its representative concept, which leads to the core to understand the doctrine. As *The Canonical Scripture* (典經) of Daesoon Jinrihoe was published in English and introduced abroad, the academic events related to the publication became active. Accordingly, the terms such as Daesoon Jinrihoe or Daesoon Thought have become widely known to the academic circles home and abroad. Considering Daesoon represents the identity of the order, an attempt to analyzing the meaning or concept of the term should require more attention.

Daesoon can be classified into the meanings of belief on the Great Itineration of the three realms by the Supreme God of the Ninth Heaven, the dharma of the Great Opening, the cultivation including the itineration and spread of the Reordering Works, and the substantial and metaphysical Limitless and Great Ultimate. Daesoon thought is a frame of the concept that reveals the true meaning of Daesoon, which enable to establish the reasonable

system in consistency.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regenerate and expand the systematic and rational thought in terms of the Great Itineration.

However, an attempt to systemizing and conceptualizing such Daesoon thought based on the tenets, creeds, and objectives seems to somewhat have a limit in revealing the substantial meaning of metaphysical Limitless and Great Ultimates. The system based on the existed tenets, creeds, and objectives has been established in religious tendency. Thus, the discussion regarding Daesoon thought in general has been prone to making the approach to the meaning of Daesoon difficult in terms of the theories of substance, human nature, and cultivation.

Summarizing the existed researches related to the concept of Daesoon, the mainstream of study includes the transcendence and presiding of personified supreme god. Henceforth, as the research of Daesoon thought accelerated, the comparative studies of religion, or philosophy regarding the personified supreme god and rationality have continued. Then, the implication about the Substance of Limitless and Great Ultimate has been discussed. As a result, the academic approach to Daesoon thought has been conducted more elaborately.

**Keywords:** Daesoon, Daesoon thought, Substance, personality, dharma of principle, the Limitless (Mugeuk), the Great Ultimate (Taegeuk)